

아이들 책에 대한 짧은 생각

이경덕 | 번역가

아내는 정기적으로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집에서 가까운 도서관에 찾아간다. 집 근처에 도서관이 생긴 건 작년 여름이었다. 그 전에는 주위에 변변한 서점도 없는 터라 어쩌다 버스나 택시를 타고 중앙도서관을 찾는 게 고작이었다. 책을 대출할 업무는 아예 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다행히 작긴 하지만 인근에 도서관이 생겨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세 모자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왔노라고 말하는 아이들의 이야기에 그냥 호뭇했다. 더러는 나를 위한 소소한 책들이 책상에 놓여 있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날 아내가 못내 아쉽다며 두 가지 불평을 털어놓았다. 하나는 도서관에 책이 별로 없다는 거였다. 새로 생겨서 그렇지 않겠냐고 대꾸했더니, 읽고 싶은 책을 신청해도 석달은 기다려야 한다는 사서의 말을 들려줬다. 결재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 하나는 아이들 책이 너무 뻥한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였다.

지난해에 아이들 책을 몇 권 쓰고 번역할 기회가 있었다. 그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이들 책에 관심을 갖게 됐다. 요즘 아이들 책이 어떤 기획철차를 거쳐 만들어지는지, 또는 어떤 책들이 잘 읽히고 팔리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몇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다.

하나는 부모들이 좋아하는 책이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이 따로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부모들도 안심하고 권하고 아이들도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도 있다. 그렇지만 부모와 아이의 기대치가 서로 다른 까닭에 뜻이 맞아 책을 사는 일이 여간해서 어려운 듯했다. 다음으로 불과 몇 년 전에 나온 책과 요새 나오는 책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이었다. 내가 모르는 사이 아이들 책은 '환골탈태'란 말이 절로 생각날 정도로 많이 달라졌다.

세번째는 번역서가 너무 많은 점이 눈에 띄었다. 아이들 책을 내는 출판사의 어느 담당자는 국내물 기획은 너무 힘들고 돈도 많이 드는 데 비해 그 결과가 미약하지만, 번역물은 손쉽게 책을 낼 수 있고 노력에 비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자꾸 그쪽으로 눈길이 간다고 말했다. 또한 번역물은 이미 그 나라 시장에서 한번 평가받았기 때문에 내용면에서도 관심이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좀 엉뚱한 말이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가 나무에 거름을 주기보다 열매를 따는 일에 치중했기 때문이라는 반성과 출판계의 현실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책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쓴다는 점이다. 미국의 어느 TV가 카메라 렌즈를 아이들의 눈높이로 내리고 집과 주변 환경을 촬영해서 보여준 적이 있었다. 카메라에 잡힌 세계는 거친 정글을 연상시켰다.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과연 얼마만큼의 책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썩어지고 있을까. 작년 한 세계 도서전에서 우리나라 출판사들이 아동도서를 '썩쓸이' 했다는 씩쓸한 보도를 봤다. 만년 불황이라는 출판상황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책은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며, 많은 출판사들이 불황 타개의 일환으로 이 분야에 관심을 보인다는 말도 들린다. 그래서 올해는 아이들을 위한 책이 그야말로 폭포처럼 쏟아질 것으로 예감되는데, 그것들이 주인공인 아이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

통권 제264호 | 1999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 김낙준

편집이사 임흥조

편집자문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김지원

기자 오원진 박천홍

이현주 김연수

사진 한준호

편집디자인 정병규디자인·서정희

출판저널·박은정

업무부장 윤동호

업무·광고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 · 5

인쇄처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110 - 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 - 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 - 1431 · 2 | 편집

732 - 1433 | 업무·정기구독문의

FAX 722 - 1174

E-mail book732@chollian.net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택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 - 6

716 - 5616~9, 716 - 5621~3